

#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1-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 스리랑카 정은범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1998년부터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정은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오래전 심장판박수술을 다시 받으셔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술을 받으시지 못하셨고, 코비드 판데믹 속에서도 꾸준히 사역을 계속해오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가족은 홍순옥 사모님과 세자녀(광현, 누가,누빈)입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들은 시각장애인 사역, 선교원사역(킬라포네교회, 야티안토타교회, 마하람베이쿨람교회), 방과후교실운영, 이동병원, 햇튼여자보육원 등이 있고, 스리랑카 '목회강화위원회' 일을 섬기고 계십니다.

최근 영국형 코로나 변종이 유입되면서, 매일 8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단했던 선교원 수업과 맹인안마원등 몇몇 모임들이 올 초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동병원 대신 체온계/세정제/마스크 보급을 하였고, 2017년부터 조금씩 진행해 온 선교센터 보수공사가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카투나야케 지방 복음전도세미나 (3/13), 칼에리야신학교, 칼쿠다 신학교 및 교회 방문(3월), 와타알라 교회 건축 완공과 봉헌예배 (4월), 와타알라 타밀학교 교실 건축 (700명 학생을 위한 3칸의 교실 건축, 여전히 교실부족), '세상에서 가장 좋은소식' 전도용소책자 번역본 출판(3월 10,000부 출판 예정), 고산지대 빈민들에게 영양제 보급 등...

**현재 가장 시급한 기도제목은 비자입니다.** 새로 출범한 강력한 친불교적 정부는 선교사님들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고, 이미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범 선교사님도 1월 20일 비자가 만료된 상태고, 이미 신청했던 연장서류는 3개월째 무소식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비자, 올해의 사역들, 가족들(광현:제대후 복학, 누가:해군헌병복무중, 누빈: 고교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위) 칼라포제 교회의 선교원 모습.

\* (좌) 와타알라 타밀학교의 교실 건축 기공식.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실 부족으로 강단 복도 등에서 수업 중인데, 인천제일교회 등의 후원으로 교실 3칸을 짓는 건축협약서가 지난주에 서명되었다. 올 8월에 완공예정.

#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1-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코로나로 인한 스리랑카 새빛센터에서의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시각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구호품과 구호금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안인과 결혼하고 비교적 부모의 넉넉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시 가족을 제외 하고는 아직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시각장애인 가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센터에서 20 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틸라크 할머니(66 세)댁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위해 전화 를 걸어 위치를 물어봤더니, '마하떼야'를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현지어로 '마하떼야'는 일반적으로 '어른 남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지칭할 때도 쓰입니다. 그 남자분이

알려준 주소를 검색해보니, 아주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벨을 누르니 저희를 반긴 것은 전화로 오는 길을 안내해 주셨던 그 '마하떼야'였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틸라크' 할머니 얼굴도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니, 50 평 아파트는 무척이나 고급스러워 보였고 무엇보다 아파트에서 내다보이는 광경이 그야말로 너무 멋졌 습니다. 남자분은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본인은 의사인데,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오래 일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 받을수록 두 분의 관계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부부라고 보기엔 여러 정황이 맞지 않았고, 틸라크 아주머니가 그 집 가정부라고 하기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가정부 일을 할 수 있지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화 도중 1981 년에 틸라크 아주머니가 그 가정 가정부로 들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26 세에 그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올 때도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 가족은 틸라크를 가정부로 고용했 고, 틸라크 아주머니의 시력이 점점 나빠졌지만, 닥터 수산떠씨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후에도 틸라크씨는 여전히 그 집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시각장애인 대부분은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원을 줄일 때, 포장 등 단순 노동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퇴직 1 순위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바로 본 외경이 정말 멋졌지만, 틸라크씨의 섬기는 마음이나 또 그 틸라크씨를 고용하고 있는 수산떠씨 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멋졌습니다. 시각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나오면서 걱정보다는 흐뭇한 마음으로 미소지며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새빛맹인선교회 월간<새빛>3 월호에 실린 선교사님 글에서 발췌

##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 공통기도:

현지에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들의 신앙이 코비드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부터 안전하시도록

감비아	한병희	금년 대통령총선거로 인한 사회적 불안해소와 복음사역
니카라과	박우석	캐나다에서 태어날 손녀, 며느리의 건강; 3 월말 출산예정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IIR) 정부 승인이 속히 해결되길
스리랑카	정은범	선교사님의 비자 연장이 새정부(친불교적)에서 허가되도록
아리조나	모니카 리	코비드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삶이 회복되도록
필리핀	김대영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리더쉽 프로젝트 사역들